

해남군, 지방소멸 대응 청년정책 '박차'

청년공공임대주택 2026년 입주
주거비·주택자금 이자 지원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도 속도

해남군이 청년이 다시 찾고, 살고 싶은 해남 만들기를 위한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청년팀을 신설해 지역의 미래를 이끌 청년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해 적극 시행하고 있다. 군은 청년 주거환경 개선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우선 총 60세대 규모의 청년공공임대주택을 건

립한다. 2026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현재 기본, 실시계획을 진행 중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주 입주 대상이다. 청년 임대주택 수리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주거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청년마을을 모델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인 '농농길 청년복합공간' 조성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오는 2026년까지 황산면 옥동마을 인근을 청년 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폐교된 옥동초등학교 별관을 개축해 청년 복합 공간으로 거점화하고, 인근 옥동, 삼호, 옥림마을을 일대 빈집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창업과 거주 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지난 2021년 개관한 청년드림센터는 청년 일자리 카페를 통한 취업상담과 직업교육을 비롯해 마음·일상·취업 등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호평받고 있다. 청년 일자리와 창업 지원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근속장려금 지원, 지역자원연계형 청년창업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창업을 지원하는 가운데 '청년 일 경험 드림' 사업과 '해남청년창업지원' 사업도 각광받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인 청년이 살기 좋은 해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며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2030프로젝트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서 기자 dia@kwangju.co.kr



신우철(오른쪽) 완도군수가 '제29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종합 대상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 대상 수상

해양치유산업 선도 높은 평가

완도군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제29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종합 대상을 받았다. 1996년 제정돼 혁신적인 조직 운영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이룬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 민간 부문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완도군은 행정 혁신, 문화 관광, 복지 보건, 지역 개발, 산업 경제, 기후 환경 등 6개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1위에 해당하는 종합 대상을 받았다. 특히 저출생·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를 극복하고자 미래 전략사업으로 해양치유산업을 2015년부터 추진한 점과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 해양치유 시설인 완도해양치유센터 개관으로 국내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했다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센터는 개관 이후 3만 명이 다녀가며 힐링 명소, 웰니스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해양 웰니스 관광도시 건설 등 미래 해양 신산업을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부장 ejhung@

박홍률 시장 "목포·신안 통합 4자 협의체 만들자" 제안

"통합시 명칭 신안군민 의견 존중"

박홍률 목포시장은 11일 목포·신안 통합과 관련해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목포·신안 행정 통합은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목포와 신안은 1994년부터 6차례 통합 시도를 해왔으나 번번이 실패하며 좌절을 겪었는데 이번만큼은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각계각층과 한마음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은 신안·무안·영암 지역구 국회의원, 목포시 지역구 국회의원, 신안군수, 목포시장 등 4자(者)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협의체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중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을 정치적으로 통합해서 1개 선거구로 편성하고, 목·무·신 갑구, 목·무·신 을구 등 2개 선거구로 조정해 무안반도 정치통합이 행정통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시 명칭과 통합정사는 신안군민 의견을 존중해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통합시 명칭은 가장 신안시로, 통합정사는 압해



박홍률 목포시장이 11일 통합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도에 있는 현 신안군청사를 우선 사용하고 현 목포시 청사는 23개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종합센터로서 출장소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2026년 준공 예정인 대규모 친환경 소각시설에서는 신안군 쓰레기를 1일 20톤씩 처리할 계획이며, 목포화장장은 화장로 1기를 연말까지 신설해 신안군민 우선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와 신안군이 공동으로 발주한 '목포·신안 통합효과분석 연구' 용역 결과 행정통합 효과로 경제적 파급 등 효과 2조원대에 이르고 관광객 수도 2027년에 2200만명으로 예측됐다. 박 시장은 "목포시는 신안군과 신안군민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협력해 목포·신안 행정통합을 우선해 반드시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

목포시, 휴가철 관광·체험형 답례품 이벤트

목포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를 맞아 '여름휴가도 목포'라는 주제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후기 등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낭만 가득한 항구도시 목포의 매력을 더욱 빛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목포를 찾는 방문객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나아가 직접적인 방문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관광 및 체험형 답례품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 관광체험형 답례품은 ▲목포해상케이블카탑승

권 ▲삼학도크루즈탑승권 ▲오트탑승권 ▲제주도 선박승선할인권 ▲목포여행권 ▲레진관광 원데이 클래스 체험권 ▲꽃약세서리, 조명만들기 체험권 ▲목포드로잉접시 체험권으로 총 8종으로 구성됐다. 이벤트는 선착순 30명으로 진행된다. 관광체험형 답례품 신청자가 목포 방문, 체험 후기(사진포함)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본인 SNS에 등록하면 3만원 상당의 경품이 지급된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13~14일 압해읍서 신안 전국아마바둑대회

신안군이 주최하는 '제3회 1004섬 신안 전국아마바둑대회'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압해읍 신안군민체육관에서 열린다. 1004섬 신안 전국 아마바둑대회는 (사)대한바둑협회와 신안군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다. 이번 대회는 전국부, 광주·전남부, 신안부 등 총 15개 부문으로 나뉘어 치러진다. 전국부는 아마추어 바둑 최강자를 가리는 전국 최강부를 비롯해 한국여성바둑연맹 혼합단체전,

시군 5인 단체전, 전국 사·도 임원 3인 단체전 등이 준비되어 있다. 광주·전남부와 신안부는 지역 성인 동호인부와 어린이 바둑대회가 함께 열린다. 특히, 이번 대회는 신안군이 고향인 세계적인 바둑스타 이세돌 국수의 팬 사인회와 예정되어 있어 바둑 동호인과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바둑 진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광군, 13일 '청소년 씬머 워터축제' 개최

영광군청소년문화센터 광장
영광군이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이울림마당-썬머 워터 축제'를 오는 13일 영광군청소년문화센터 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식전행사와 공연마당, 게임마당, 체험마당으로 기획됐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물놀이 에어바운스이다. 커다란 미끄럼틀을 타고 시원하게 미끄러지며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와 무더위를 한 번에 날릴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물총 서바이벌, 물속 보물 찾기 등 게임마당 참가자들에게는 푸짐한 상품이

주어진다.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부스도 운영된다. 3D펜 체험, 업사이클링 체험, 향수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무료로 진행하며 체험부스 참여에 따라 푸드트럭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썬머 워터 축제를 통해 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을 보다 즐겁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